

## 2024년 9월 글로벌 보안 전망: 인도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망명 및 난민 유입 증가로 인한 인도 국경의 보안 및 경계 강화
- 인도 내 반이민적 정서 증가에 따라 반이민적 정책 요구 및 무슬림 대상의 보복 공격 가능성 증가



Source: The Telegraph

### 보안 현황

인도 동부 인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악화로 인해 인도로 난민 및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 방글라데시: 지난 7월 공무원 할당제 도입으로 촉발된 시위가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면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8월 5일에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했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8월 8일 부터 임시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가 하시나 전총리와 연루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내 반인도 감정이 급증하였고 이는 힌두 소수 민족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과 전 여당 의원이 인도로 건너가려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는 국경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 미얀마: 2023년 10월 이후, 친(Chin), 라카인(Rakhine),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민족 무장 조직과 군부 간의 전투가 심화되었습니다. 인도는 미얀마와 1,643km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허술한 국경을 넘어 난민, 탈영병이 인도로 유입됐습니다. 인도는 2024년 초부터 인근 항구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인도 북동부 주에서는 반이민 감정이 고조되면서 시위가 일어났고, 국가시민명부(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NRC) 등록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불법 이민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RC는 인도 국적자를 명부에 등록하는 것인데 불법 이민자를 식별하고 추방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로 무슬림 로힝야 난민과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아삼(Asom), 메갈라야(Meghalaya), 트리푸라(Tripura) 등 지역에서 민족 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 단기적 보안 영향

인도 내 민족, 종교 공동체 간 긴장이 고조되면 축제 및 명절 기간에 집단 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힌두교 단체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힌두교도 대상 공격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일 수 있으며, 이는 무슬림에 대한 보복적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 내 방글라데시 외교공관 인근에서 시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방글라데시, 인도-미얀마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이동을 금지할 경우, 민족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니푸르(Manipur)와 미조람(Mizoram) 지역에 거주하는 쿠키조(Kuki-Zo)족, 미조(Mizo)족은 미얀마의 쿠키친(Kuki-Chin)족과 같은 부족이고, 나가(Naga)족도 인도의 나갈랜드(Nagaland)와 미얀마의 사가잉 나가자치지역(Naga Self-Administered Zone)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역이 활발했고 국경폐쇄 시 지역 경제와 무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온 테러리스트 혐의자의 체포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인도 북동부 주에서 반군 집단의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도 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인 군특별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악화 지표	평 가
방글라데시 임시정부의 안정화 및 미얀마 분쟁의 규모 현상유지	인도-방글라데시 외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높음. 그러나 인도의 국경 설치 및 NRC 시행의 요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방글라데시에서 반인도 감정 증가	방글라데시의 인도 국민과 외교 자산에 보안 위험 증가. 인도에서는 이로 인해 시위와 산발적인 공동체 폭력 사건이 발생 가능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의 갑작스러운 해체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공백은 보안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인도로의 이민자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초국경 무장 단체의 활동 증가	국경을 넘는 침투가 증가하면 국경 지역의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AFSPA 가 확대. 반이민 시위와 불법 난민 추방 요구는 인도의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방글라데시 또는 미얀마에 기반을 둔 반군 집단의 대규모 공격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시 지역적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켜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 대해 인도의 보복적 보이콧이 시행될 수 있음

### 출장관련 조언

-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글라데시의 정치 상황과 미얀마의 갈등과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안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그에 따라 조언해야 합니다. 출장자는 인터내셔널 SOS의 경보(Alert), 외교 공관, 현지 소식통 등 검증된 출처를 통해 최신 보안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지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 나갈랜드(Nagaland) 주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의 일부 지구 및 아솜(Asom)으로의 출장은 도적, 무장 부족 및 반군 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강화된 보안 및 물류 지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니푸르(Manipur) 주의 경우 비르티켄드라짓 국제공항(IMF)을 통해 주도 임팔(Imphal)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임팔 외부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현지 소식통을 통해 육로 이동의 여건 및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